카타리나 슈츠 첼, 이델레트 드 뷰르, 개혁주의 여성들의 결혼관과 결혼경험

엘시 안나 맥키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아치볼드 알렉산더 개혁신학 및 예배역사 교수)
번역 : **우병훈** (고신대, 신학과 교수)

[초록]

개신교 운동은 근대 초기의 결혼 이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개혁주의 전통의 여성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개신교도들은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한 선행으로서의 독신을 거부했으며 결혼을 성직자를 포함한 크리스찬을 위한 이상으로 향상시켰다. 개혁주의 여성들이 그들의 신앙을 표현했던 한 가지 방법은 사제들과 결혼함으로서 성직자들의 결혼을 금지했던 중세의 교회법에 항거하여 성경적 권위(예, 딤전 3장)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명망이 높은 시민이었던 과거의 수녀들은 신앙에 대한 표현으로서 종교개혁자들과 결혼했다. 결혼의 이상에 대해서 개혁주의 여성들이 기여했던 둘째 방식은 그들이 가정을 꾸려 나감에 있어서 이를 그리스도를 따라감에 있어서 환대와 참여의 모델로 삼았다는 점이다. 상당한 수의 개혁주의 여성들은 그들의 신앙과 개신교 남편을 위해서 망명을 선택했다. 카타리나 슈츠 첼과 같은 자들은 그들이 사제들과 결혼하겠다는 결정과 "교모"로서 봉사를 위한 그들의 소명을 방어하는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했다. 신앙과 결혼 사이에서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안느 아스큐와 같은

논문투고일 2016.5.1. / 수정투고일 2016.6.23. / 게재확정일 2016.6.23.

개혁주의 여성들은 결혼을 거부함으로서 그들의 신앙적 충성심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주제어: 여성, 카타리나 슈츠 첼, 이델레트 드 뷰르 칼빈, 성직자의 결혼, 성경적 권위, 목회적 동역

"하나님은 우리들의 결혼이 지금과 같은 그대로 종말까지 지속되도록 하신다. 그래서 나는 결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결혼이 우리들의 영혼에도 유익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육 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 만일 우리가 신앙 때문에 추방당하고 죽임 당해야 한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눅 24:25-26)?'라고 말씀하신다. …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인내 가운데 종말을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과 내 남편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부부 안에서 이뤄지기를! 우리 부부가 이 세상과 불화하여 죽는다면 그보다 더 큰 영예는 없으리라 나는 믿는다. 십자가에서 우리 부부는 기쁘게 서로에게 말할 것이다. 남편은 나에게, 나는 그에게 말하면서, 서로를 견고하게 도울 것이다." [1)]

1) Katharina Schütz Zell, *Church Mother. The Writings of a Protestant Reformer in Sixteenth-Century Germany*, trans./ed. E.A. McKee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2006), 79, 80.

이 인용문은 카타리나 슈츠 첼이 1524년에 한 말이다. 그때 그녀와 그녀의 남편 매튜 첼은 결혼 때문에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었다. 남편 첼은 독신 서약을 한 로마 가톨릭 사제였었다. 그가 개신교도들이 자신들을 부를 때처럼 "복음을 따르는 자"가 되었을 때, 그는 개신교도들이 인간의 전통으로 여겼던 것을 거부했다. 카타리나 슈츠는 아주 경건한 어린 소녀였는데, 가장 거룩한 기독교적 부르심으로서 동정 서약을 개인적으로 했었다. 그녀가 마틴 루터와 매튜 첼이 선포했던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녀 역시 독신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매우 특별하고 공로적인 방법이 된다는 생각을 포함한 인간의 전통들을 버렸다. 그래서 1523년 12월 3일에 카타리나 슈츠와 매튜 첼은 마르틴 부써의 주례로 결혼했다. 부써 역시 이전에는 수도승이었으나 수녀와 결혼한 사람이었다.[2]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

이 발표에서는 초기 개혁파 교회에서 여성들이 설명하고 경험했던 결혼에 대한 생각과 관습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개신교) 목사와 결혼한 최초의 여성들 중에 한 명이었던 카타리나 슈츠 첼이 표현한 신학에 대해서 몇몇 주제를 탐구한다. 두 번째 부분은 개혁파 여성 리더들의 실제 결혼 생활의 여러 국면들을 토의하고자 한다: 안나 라인하르트 츠빙글리(Anna Reinhard Zwingli), 카타리나 슈츠 첼(Katharina Schütz Zell), 엘리자베스 질베라이젠 부써(Elisabeth Silbereisen Bucer), 아그네스 드렌스 카피토(Agnes Drenss Capito), 안나 아들리쉬빌러 불링거(Anna Adlischwyler Bullinger), 마리 당티에르(Marie Dentière), 이델레트 드 뷰르 칼빈(Idelette de Bure Calvin)을 다룰 것이며, 아울러 앤 아스큐(Anne Askew)와 같은 좀 색다른 인물들도 다루겠다.

2) Elsie Anne McKee, *Katharina Schütz Zell. The Life and Thought of a Sixteenth-Century Reformer* (Leiden: Brill, 1999). 카타리나 슈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이 책의 1장을 보고, 초기 개혁 운동에 대해서는 2장을, 결혼에 대해서는 49쪽을 보라.

I

비록 종종 잊히긴 하지만, 결혼이라는 문제는 개신교 신학, 특히 개혁파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었다. 이 주제는 몇 가지 차원이 있었다. 하나는 거룩의 개념이 달라진 것이다. 거룩이란 하나님을 향해 구분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중세 로마 가톨릭의 관점에서는 교회와 관련된 모든 것이 거룩과 동일시되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제들, 수도승들, 수녀들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욱 거룩했다. 예배당들, 성체 용기들, 성물들, 제단의 옷들, 처녀 마리아의 조각상들, 성인(聖人)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집들, 용기(容器)들, 냄비들은 일상적 일들보다 더 거룩했다. 성인(聖人)의 날들은 평일들보다 더 거룩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고, 그들의 세계는 교회의 가르침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두 계층의 기독교인들, 두 계층의 장소들과 사물들과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 요점이다.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 보다 더 가까웠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 받도록 도와주는 통로가 될 수 있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을 제공하는 특별히 거룩한 사람들과 장소들과 시간들과 사물들이 필요했다.

개신교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는 칭의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구분들에 이의를 제기했다. 만일 구원의 수단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즉 인간의 공로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이나 사물보다 본질적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나 장소나 시간이나 사물은 없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용서 받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오로지 성령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실 때에 발생하는 일이다.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같은 수준에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이 신앙과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진 모든 사람은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곧장 기도할 수 있다

는 말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제들이다. 누가 거룩한 사람이며 어떻게 하나님께로 구분되는가에 대한 이 새로운 생각은 실제로 로마 가톨릭 사제들을 불필요하게 만들었다.

결혼에 대한 변화의 두 번째 측면은 개신교 신학의 또 다른 근본적 근거와 연관되어 있다: 그것은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다. 오직 믿음과 은혜로 받는 칭의는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주었다. 그리고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은 신학에서 권위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공해 주었다. 개신교도들이 구속력이 있는 교리들은 오로지 성경에서만 나와야 한다고 말할 때에 그들은 당시 교회의 일상적 가르침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제거해 버리거나, 적어도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것은 결혼에 대한 가르침과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했다.

여성, 성(性), 결혼에 대한 중세의 견해들을 간략히 요약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세 가지는 많은 이유들 때문에 종종 밀접하게 연결된다. 전통적 사회들에서, 여성의 주된 역할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성경, 특히 구약에서도 주로 그렇게 생각된다. 기독교 역사 대부분에서 성은 죄악된 욕망과 연결되었다. 그래서 중세 교회에서는 결혼한 사람들이 독신자들보다 덜 거룩했다. 그리고 성생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영적인 사람으로 여겨졌다.

결혼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 삶의 방식의 두 번째 계층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결혼은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었다. 자녀 생산 즉 새로운 기독교인들을 생산하는 것과 (성적) 부도덕에 대한 하나의 처방이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생활과 연결된다. 성과 여성과 결혼이 서로 연관되는 상황에서, 성이 부정적으로 여겨졌으므로, 여성과 결혼 역시 부정적으로 여겨졌다.

또 다른 한편으로, 성을 부정하는 것은 주로 남성적인 것과 연관되었다. 로마 가톨릭에게는 영적이고 거룩한 삶의 길은 (카타리나 슈츠가 그러했듯

이) 독신 서약을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독신 서약을 한 여성들은 "남성적"이라며 칭송을 받았다. 게다가, 독신 서약은 선행으로 간주되었다. 남자나 여자나 독신 서약을 할 경우, 구원에 필수적인 것을 넘어선 과외의 일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선행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개신교도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호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신 서약에는 그 어떤 미덕도 없었다.

사실상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축복하셨으며, 그것을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델로 만드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대로 사용되기만 한다면, 성은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한 부분이었다. 이 신학의 결과로 개신교도들은 결혼을 일반적이고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만들었다.[3)]

모든 사람이 다 결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식이다. 사실상 부써와 칼빈이 이끌었던 개혁파 전통은 결혼을 타락 전 에덴에서의 기원에 근거해서 봄으로써 결혼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수정했다.

이것에 따르면, 결혼의 주된 목적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동반자 관계됨에 있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자이다(창 2:18). 비록 아내는 남편에게 여전히 종속되지만, 아내 없이는 남편은 불완전하다. 다만 반쪽짜리 인간에 불과한 것이다. 교리상의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남편이나 아내는 일종의 파트너 관계가 되었다. 남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부

3) For a good overview of Reformed thinking about marriage, the reformer Martin Bucer provides the most articulate – and for his day, radical – teaching. Calvin's teaching is also important though less radical. See Herman Selderhuis, *Marriage and Divorce in the Thought of Martin Bucer,* trans. J. Vriend & L. D. Bierma (Kirksville, MO: Truman State Univ., 1999). For a summary of Calvin's teaching in the context of Genevan practice, see Elsie Anne McKee, *The Pastoral Ministry and Worship in Calvin's Geneva* (Geneva: Droz, 2016), 357–75.

부는 서로에게 온전한 신뢰를 주어야 했다. 남편과 아내 각자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삶을 살도록 해주신 사람으로서 상대방에게 의존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되는 것은 거룩한 소명이 되었다. 가족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소명을 이뤄내는 주요한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의 사역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오직 믿음과 은혜로 받는 칭의'와 '오직 성경'에 대한 개신교적 가르침 가운데 한 방식은 무엇보다 목회자들이 결혼하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보이게 된 것이다!

새로운 신부로서 카타리나 슈츠는 자신의 결혼이 엄청나게 많은 추문(醜聞)들을 불러일으킨 것을 알았다. 공식적인 차원에서, 스트라스부르의 주교는 그녀의 남편 매튜 첼 및 그 외에 결혼한 다른 사제들을 권징했으며, 설교를 못하도록 강단에서 내쫓아 버렸다. 그들이 교회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일반 사람들의 차원에서, 어떤 시민들은 첼을 칭송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다: 분명 그의 신학은 틀렸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가 교회의 독신 서약을 깨뜨렸을 리가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가 아내를 얼마나 학대 했는지에 대한 소문들도 무성했다.

카타리나 슈츠는 우선 주교에게 글을 써서 사제들이 결혼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옹호했다. 그녀는 중상자들에게도 답변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4] 진리를 옹호하는 것은 그녀가 가진 기독교인의 의무였다. 그녀는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원했다. 그리하여 (남편) 첼이 성경을 따른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설교자인 남편에 대한 거짓 소문 때문에 복음으로부터 등을 돌린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했다. 그래서 1524년 7월에 카타리나 슈츠는 『나의 남편이며 스트라스부르의 목회자이며 말씀의 종인 매튜 첼을 위한 카타리나 슈츠의 변호』라는 작은 책자를 출간했던 것이다.[5]

4) Katharina Schütz Zell, *Church Mother*, 71.
5) Katharina Schütz Zell, *Church Mother*, 62-82.

카타리나 슈츠는 사제의 결혼에 대해 세 가지로 논증을 펼친다. 첫째는 실천적 도덕성이다. 전통적으로 많은 사제들이 독신 서약을 지키지 않았고, 주교들은 이것을 용인해 주었다. 심지어 주교들은 부도덕한 사제들의 내연녀들과 자식들에 대해 세금까지 매기면서 수입을 얻었다. 카타리나 슈츠는 이러한 비도덕성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끔찍한 영향에 대해 상당히 자세하게 기술한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았는데, 이런 시스템이 나쁜 행동을 조장했기 때문이다.[6]

둘째로, 너무나 당연하게도 카타리나 슈츠는 성경을 가지고 사제들의 결혼을 옹호한다. 이것은 교회의 전통보다도 디모데서나 디도서의 가르침을 더 우위에 두는 '오직 성경'의 원리를 따른 하나의 경우이다. 교회법에 따르면 사제는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성경 말씀, 예를 들어 딤전 3장을 따르면 감독들과 집사들은 결혼을 한 사람으로 나온다.[7] 이러한 이유로 사제의 결혼은 초기 종교 개혁의 아주 중요한 표지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것은 개신교도들에게는 성경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권위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아주 분명한 방식이었다. 개신교 목회자들은 결혼을 통해 이런 주장을 분명히 하였고, 그리하여 로마 가톨릭 전통과 교회법의 권위를 자신들이 거부한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카타리나 슈츠와 같은 여성들은 사제와 결혼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었다. 때로는 목사들의 새로운 아내들이 이전에 사제의 내연녀인 경우도 있었다. 그런 여인들은 부도덕하다고 아주 오랫동안 비난 받았었다. 그들은 교회의 예전과 생활에 온전히 참여하는 권리를 얻지 못했었다. 카타리나 슈츠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인들 가운데 적어도 몇 사람을 알고 있었으며, 그녀는 그들이 제대로 살 권리가 있다

6) Katharina Schütz Zell, *Church Mother*, 73-77.
7) Katharina Schütz Zell, *Church Mother*, 73-75.

고 생각했다.[8)]

사제들이 내연녀와 [공식적으로] 결혼했을 때, 그들은 여성의 지위를 회복했으며, 그들의 자녀들도 역시 그렇게 되었다. 비록 여전히 사제의 아내라는 심각한 꼬리표가 늘 따라다니긴 했어도 말이다.

그렇다면 카타리나 슈츠처럼 사제와 결혼하기로 결정한 존경 받는 여인들의 경우에는 어떠할까? 이것은 정말 강력한 개신교 신앙을 보여주는 한 단계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자기들이 사는 도시가 개신교 도시가 아니라고 한다면, 생명의 안전 역시도 보장 받지 못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그들과 그들의 남편들은 교회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추방될 수 있었다.

자신의 작은 책자에서 카타리나 슈츠는 사제와 결혼하기로 한 자신의 결정에 대한 옹호를 포함시켰다. 그녀는 왜 자신이 이 문제에 엮이게 되었는지 말하면서 시작한다. 그것은 사제들의 부도덕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이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저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벌써 사탄에 속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사제와 결혼하는 일을 찬성하는 이유입니다."[9)]

계속해서 그녀는 비록 자신이 결혼하고자 했던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스트라스부르에서 사제와 결혼을 한, 존경 받는 첫 번째 여인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

8) See Marjorie E. Plummer, *From Priest's Whore to Pastor's Wife: Clerical Marriage and the Process of Reform in the Early German Reformation* (Farnham, UK/Burlington, NH: Ashgate, 2012). Katharina Schütz Zell, *Church Mother,* 76.

9) Katharina Schütz Zell, *Church Mother,* 77.

그러나 나는 사제와 결혼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과 맹렬한 반대를 보았고, 또한 사제 집단의 엄청난 매춘 행위를 보았기에, 저 자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을 위한 길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사제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망하는 바는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작은 책자를 썼습니다. 여기서 저는 저의 신앙 및 제가 결혼한 이유의 근거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10)]

자기 신앙을 선언하기 위해 결혼한다는 생각은 현대인들이 들으면 상당히 이상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개신교 여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용기와 헌신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표지가 될 수 있었다.

II

때때로 초기 개혁파 여인들의 말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는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생애는 결혼에 대한 그들의 확신들을 분명하게 표현했다. 이번 발표의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섹션에서는 개혁파의 많은 탁월한 여인들, 특히 개혁파 지도자들의 부인들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서술하겠다. 그리고 둘째 섹션에서는 그들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는 그들의 결혼에 대한 핵심적 측면들을 요약하겠다.

제 1세대 개혁파 목사들의 아내들 중 많은 이들은 복음을 용감하고 신실하게 따른 자들의 경험에 대한 좋은 일별(一瞥)을 제공한다. 1522년에 울리히 츠빙글리는 안나 라인하르트라는 젊은 과부와 비밀스레 결혼했다.[11)] 그는 1519년 1월에 취리히에 온 이후로 개신교의 새로운 방식으로 설교를 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 도시는 여전히 콘스탄츠의 주교의 지배하에 있었다. 츠빙글리와 그의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성경적 근거에 근거하여 행동

10) Katharina Schütz Zell, *Church Mother*, 77.
11) Roland Bainton, *Women of the Reformation in Germany and Italy* (Boston: Beacon, 1971/74), 161-62.

했다. 예를 들어 사순절에도 고기를 먹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행동 중에 하나가 결혼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안나의 관점에서 보자. 교회의 법에 따른다면, 그녀는 이제 사제의 내연녀가 된 것이다! 1524년에야 비로소 그 결혼이 공식화 되었는데, 그때는 취리히가 로마교의 관습과 결별하기로 투표한 이후였던 것이다.

엘리자베스 질베라이젠 부써의 이야기는 다소 비슷하긴 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더욱 충격적인데, 그녀와 그녀 남편 모두 독신 서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이다.[12] 엘리자베스는 12살 때부터 수녀가 되었다. 그녀가 고아가 되었을 때 친척이 그녀를 수녀원에 보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그 친척들은 그녀를 돌보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그녀에게 상속될 유산의 상당 부분도 가져갈 수 있었다. 수녀원에서 엘리자베스는 종종 아팠다.

그녀는 수녀가 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기독교적 생활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신앙 때문에 수녀원을 떠나기로 작정했다. 1522년에 그녀는 마르틴 부써와 결혼했는데, 부써는 사제이자 수도승이었다. 그는 그녀가 수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도록 설득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결혼으로 부르셨다고 느꼈고, 각각 상대방에 헌신했다.

몇 달 후에 부써가 다른 결혼한 사제들과 함께 목사로 사역할 때의 일이다. 그 사제 부부들이 쫓겨나게 되자, 부써와 엘리자베스는 부써의 고향인 스트라스부르로 가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매튜 첼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의 개신교적인 설교가 스트라스부르의 주교를 매우 동요시켜 놓고 있었다. 첼은 부써를 초청하여 자신의 강단에서 설교하도록 했다. 물론 추문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었다.

스트라스부르의 작은 개신교 그룹은 이 새로운 목사 부부를 환영했다. 그

12) Herman Selderhuis, *Marriage and Divorce in the Thought of Martin Bucer*, 116-23.

리고 카타리나 슈츠와 엘리자베스 질베라이젠은 장차 좋은 친구가 될 것이었다. 남편의 사역을 지원하는 엘리자베스의 삶은 대체로 가정을 돌보는 것과 많은 자녀들을 낳아 기르는 일(아마도 11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중에 다섯 명만이 유년기에 살아남음)과 손님들 특히 여행하는 개신교 목회자들을 맞이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교육 받은 여인이었고, 때때로 다른 개혁파 여인들과 서신교환을 했다. 그러나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집안일에 쏟았다. 그녀가 1541년에 역병으로 죽었을 때, 부써는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분명히, 몇몇 여인들에게는 목사와 결혼하기로 선택한 것은 많은 부정적 비판에 직면해야 했던 믿음의 표현이었다.

독일어권에서 살았던 다른 중요한 개혁파 여인들은 여인들이 사역으로서 결혼으로 부르심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그림의 보다 상세한 부분들을 더해준다. 그리고 또한 그 결혼이 그녀들의 가족과 마찰을 일으킬 때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 했는지도 보여준다. 마가렛 드렌스는 스트라스부르의 아주 명문 가문의 딸이었다. 그녀와 그녀 어머니 아그네스는 초기부터 개신교로 전향했던 사람들이었다. 개혁자 카스파르 헤디오가 마가렛에게 결혼해 달라고 프로포즈 했을 때, 그녀와 그녀 어머니는 승낙했다. 그러나 마가렛의 오빠 안드레아스는 매우 심하게 반대했다. 그는 (개신교의) 새로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누이가 사제의 내연녀가 되어서 집안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때 개신교도였으며, 드렌스 가족의 친척이었던 스트라스부르의 또 다른 시민이 개입하여 결혼을 지지해 주었다. 마치 그가 그 여인들의 후원자가 된 것처럼 말이다. 그러자 마가렛은 그 설교자와 결혼을 할 수 있었다. 이후에 멀지 않아 그녀의 오빠 역시 개신교로 전향했기에, 가족들은 다시 화평을 회복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 개신교 여성이 신앙을 걸고 결혼하고자 하는 선택은 상당히 많은 용기를 요구했으며, 그것은 때로 가족에 대한 반항이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여인이 자신을 도와주고 지지해 주는 친척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또한 생각해야 한

다.[13]

또 다른 경우가 안나 아들리쉬빌러의 경우인데, 그 젊은 여인은 귀족 가문 출신이었으며, 1523년에 수녀가 되었다. 그녀는 취리히에 있는 오이텐바흐 수도원에서 살고 있었다.[14] 몇 년 뒤에 안나는 새로운 젊은 개혁자인 하인리히 불링거를 만나는데, 그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했다. 사실상, 그는 긴 구혼 기간 동안 그녀에게 수많은 러브 레터를 썼다. 첫 번째 편지는 1527년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해 10월 27일에 약속했다. 그러나 안나는 그 관계를 깨뜨리고자 했는데, 아마도 과부였던 어머니가 그들 관계를 심하게 반대해서였을 것이다. 불링거는 계속해서 주장하기를, 약혼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다른 목사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안나를 설득하는 것을 좀 도와달라고 했다. 하지만 안나는 여전히 머뭇거렸다. 안나의 어머니가 죽고 나서 6주가 지난 1529년 8월 17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안나와 불링거는 결혼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렸는데, 부써의 경우처럼 자녀를 많이 출산하여 안나는 매우 바쁘게 되었다. 그들은 또한 츠빙글리 사후에 그의 부인과 아이들과 다른 친척들과 학생들을 돌봐주었다. 안나의 삶은 처음에는 그녀의 어머니를 돌봐주는 것이었고, 이후에는 그녀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돌봐주는 그런 삶이었다. 1563년에 역병이 맹렬한 기세로 덮쳤을 때, 안나는 남편을 극진히 간호했다. 하지만 그녀와 몇몇 자녀들은 역병 때문에 죽고 말았다.

비브란디스 로젠블라트는 바젤 시민의 딸이었는데, 아마도 결혼에 있어서 가장 많은 변화들을 겪었던 사람일 것이다. 그녀의 삶은 개혁자의 아내의 역할의 중요성을 거듭거듭 잘 보여준다.[15] 젊었을 때 그녀는 바젤의 교양 시민이었던 켈러라는 사람에게 시집간다. 그들은 딸을 하나 낳았다. 그

13) Elsie Anne McKee, *Katharina Schütz Zell. The Life and Thought of a Sixteenth-Century Reformer,* 54-55.

14) Rebecca Giselbrecht, "Myths and Reality about Heinrich Bullinger's Wife Anna", *Zwingliana* 38 (2011), 53-66.

15) Herman Selderhuis, *Marriage and Divorce in the Thought of Martin Bucer,* 123-28. Roland Bainton, *Women of the Reformation in Germany and Italy,* 79-96.

러나 곧 그녀의 남편은 죽고 말았다. 나이가 지긋한 사제이자 개혁자였으며 종교개혁 운동을 바젤에서 이끌고 있던 요한네스 외콜람파디우스가 성경적 신앙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고자 결혼해야겠다고 마침내 결심했을 때, 그는 이 젊은 과부에게 자신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간청했다. 그들 사이의 나이는 크게 차이가 났고, 비브란디스는 또한 사제의 내연녀라는 불명예스런 역할을 맡게 될 텐데도, 그녀는 승낙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해야 한다는 부르심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러 명의 자녀를 두었다. 아버지(=외콜람파디우스)는 아주 박식한 학자였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역사상 유명한 이름들을 지어주었다. 아들은 에우세비우스(초대 교회의 역사가), 딸은 알레테이아와 이레네(각각 진리와 평화라는 헬라어 단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러나 외콜람파디우스는 1531년에 갑작스레 죽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외콜람파디우스의 친구이자 스트라스부르의 개혁자 볼프강 카피토의 아내 역시 세상을 떠났다. 카피토는 부써와 첼과 헤디오의 동료였다. 부써는 카피토가 자식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아내가 필요하며, 비브란디스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남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결혼하라고 제안했다. 그들은 서로 만났고, 부써의 충고를 따르기로 합의했다.

카피토와 결혼하기 위해서 비브란디스는 바젤에서 스트라스부르로 이사를 가야했다. 비록 그 두 도시가 유대 관계가 매우 좋긴 했지만, 이 이사는 아주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녀는 아이들과 어머니를 데리고 갔고, 카피토의 집안일을 책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다섯 명의 아이들이 더 도착했다.

그러나 16세기에 삶이란 매우 불안정한 것이었다. 1541년에 또 다른 역병이 돌았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을 정도로 매우 심각했다. 그 때문에 비브란디스의 아이들도 여러 명 죽었고, 카피도 자신도 죽었다. 부써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질베라이젠도 죽었으며, 그들의 아이들도 한 명만 빼고는 다 죽었다. 엘리자베스는 임종의 자리에서 카피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카타리나 슈츠에게 부탁하기를 과부가 된 비브란디

스를 자기 집으로 좀 데려와 달라고 했다. 거기서 엘리자베스는 자기가 죽고 나면 부써와 비브란디스가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얼마 안 있어 엘리자베스는 죽었고, 몇 달 후에 부써와 비브란디스는 그들의 약속을 지켰다.

비브란디스는 이전에 결혼해 살던 집에서 아이들을 부써의 집으로 데려왔고, 거기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그리고 부써의 한 명 남은 아이들과 다른 모든 뒤섞인 가족들을 돌보았다. 비브란디스는 이 네 번째 결혼에서 몇 명의 자녀들을 더 낳았다. 하지만 그들 중에 단 한 명만 유년기를 보내고 살아남았다.

그러나 비브란디스가 이 남편과 함께 살 때에 오직 역병만이 큰 위기였던 것은 아니었다. 이번에는 그 가족을 갈라놓은 보다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로마 가톨릭 군대가 개신교도들을 이겼을 때, 부써와 같이 거리낌 없이 말하는 종교개혁자들은 추방시켜 버렸다. 부써는 케임브리지에서 가르치기 위해 영국으로 가 버렸다. 그건 스트라스부르에서 아주 멀고 위험한 여행이었다. 비브란디스는 그를 돌보기 위해서 함께 여행했는데, 그것은 아이들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큰 딸들 중에 하나를 남겨 부써를 돌보도록 하고서, 자신은 나머지 가족들을 다 모아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독일로 갔다. 그녀가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써는 죽었다. 비브란디스는 또 다시 스트라스부르로 갔다. 그리고 집에 있는 아이들을 다 데리고 다시 바젤로 갔다. 거기서 그녀는 계속해서 모든 가족들을 지도하고 돌봐주었다.

복음에 대한 그녀의 헌신 때문에 비브란디스는 세 번이나 사제와 차례 차례로 결혼을 했으며, 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는 어려움을 견뎠으며, 힘든 여행도 감내했고, 그리고 힘들면서도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키워내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항상 바깥일에 바쁜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을 돌보는 수많은 일상적 업무도 역시 감당했다.

이상에서 말한 모든 여인들은 모두 다 1520년 초에 개신교가 시작된 독

일어권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프랑스어권과 영어권 개혁파 진영에서도 역시 중요한 여인들의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다.

마리 당티에르는 결혼과 신앙에 대해 얘기한 첫 번째 프랑스 여성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16] 그녀는 귀족 출신의 수녀였다. 그녀가 이 새로운 복음적 가르침에 매료되었을 때, 아마도 자신이 속한 수녀원의 부원장이었던 것 같다. 프랑스는 매우 강력한 가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개신교도가 되면 추방당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당티에르는 자신이 속한 종단을 떠나 스트라스부르로 갔다. 그곳이 가장 가까운 개신교 도시였기 때문이다. 거기서 그녀는 이전에 사제였던 시몽 로베르(Simon Robert)와 결혼한다.

그 부부는 윌리엄 파렐과 협력하여 론(Rhone) 계곡의 프랑스어권에서 설교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했다. 로베르가 죽자, 마리는 몇몇 어린 자녀들과 함께 남겨졌다. 그녀는 이제 앙투완 프로망(Antoine Froment)이라는 사제와 결혼했다. 그와 함께 그녀는 제네바의 개혁에 동참하기 위해 거기로 갔다. 마리는 처음으로 복음 사역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아주 활발하게 설교를 했다. 그녀는 생 클라르(St. Clare)에 있는 수도원의 수녀회에 특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그녀는 결혼의 좋은 점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 수녀들 가운데 한 사람은 그녀의 메시지에 얼마나 그들이 분개했는지 기록해 주었다!) [17]

이델레트 드 뷰르는 존 칼빈의 아내로 잘 알려져 있으나, 카타리나 슈츠

16) Mary B. McKinley, "Introduction", Marie Dentière, *Epistle to Marguerite de Navarre and Preface to a Sermon by John Calvin*, trans./ed. Mary B. McKinley (Chicago: Univ of Chicago, 2004)

17) Jeanne de Jussie, *The Short Chronicle. A Poor Clare's Account of the Reformation in Geneva*, trans./ed. Carrie F. Klaus (Chicago: Univ of Chicago, 2006), 151-52 quotes Dentière as saying "Oh, you poor creatures, if you knew what a good thing it is to be next to a handsome husband and how pleasing to God! Alas, I was for a long time in this darkness and hypocrisy where you are. But God alone showed me the delusions of my wretched life, and I saw the trust light of truth and realized I had been living in sorrow the whole time because in these convents there is nothing but hypocrisy, mental corruption, and idleness. And so, without hesitating I took five hundred ducats from the treasury and left that miserable life, and thanks to God alone I already have five fine children and I lead a good and healthy life." The nuns were "horrified" by these "false and deceitful words" ,152.

나 마리 당티에르가 기록물을 남겨놓은 것과는 달리 그 어떤 기록물도 남겨 놓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신앙과 결혼에 대한 그녀의 헌신을 매서울 정도로 잘 보여준다.

당티에르와 마찬가지로 이델레트 드 뷰르도 역시 신앙 때문에 집을 떠나 추방당해야 했다.[18] 드 뷰르는 카타리나 슈츠와 마찬가지로 중간 계층의 사람이었는데, 그녀의 고향은 복음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으로 전향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이델레트는 가족과 신앙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녀와 남편 장 스토르되르(Jean Stordeur)가 리에주(Liège)를 떠나 스트라스부르의 개신교 도시로 옮겨갔을 때, 그녀는 결혼하여 아이가 둘인 상황이었다. 그들은 재침례교도들이었는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반대했다. 신약성경에 유아세례가 나오지 않는 까닭이었다.

이 무렵 칼빈은 스트라스부르에 있었는데, 제네바 사람들이 그의 개혁을 반대하여 제네바를 떠나도록 명령했기 때문이다. 스트라스부르는 독일어를 쓰는 지역이었으므로, 부써는 칼빈을 불러 프랑스어를 쓰는 종교적 피난민들의 목사가 되도록 했다. 스트라스부르에서 이델레트 드 뷰르와 장 스토르되르는 칼빈을 만나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의 회중에 참여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스토르되르가 죽었다. 당시에 칼빈은 아내가 될 사람을 구하는 중이었으나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 가장 최근에는 독일어를 쓰는 부유한 개신교 친구들이 한 여인을 소개시켜준 적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 가문의 한 젊은 여인과 칼빈이 결혼하기를 원했었다. 그러나 칼빈은 그것은 그렇게 좋은 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의 아내는 같은 언어를 쓰고, 사회적 배경도 비슷하며, 무엇보다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19] 이델레트 드 뷰르가 정확하게

18) See Emile Doumergue, *Jean Calvin. Les hommes et les choses de son temps. Tome second : Les premiers essais* (Lausanne : Georges Bridel, 1902), 463, 466, 469.

딱 맞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칼빈은 그 과부에게 자기와 결혼해 달라고 프로포즈했다.

이델레트에게는, 칼빈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이미 피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 만일 목회자와 결혼한다면 상황은 더욱 불리해지게 된다. 더군다나 칼빈은 너무나 가난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소명이라 믿었다. 그녀는 신앙을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서,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추방당하기를 선택했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개신교 목사들과 결혼했던 다른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더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기로 결심하고 있었다.

이델레트와 칼빈이 1541년 제네바로 이사왔을 때에 그들은 더 이상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겪지는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교회 상황은 매우 좋지 못했다. 제네바 시민들이 이전에 칼빈을 추방했을 때와 비교해 보면, 교회 생활을 개혁하고자 하는 칼빈과 그의 생각은 여전히 별로 인기가 없었다. 그래서 이델레트는 환자를 방문하고 칼빈을 찾아온 모든 여행객들을 환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회적 논쟁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살아야만 했다.

이델레트도 칼빈도 건강이 안 좋긴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유일한 자녀는 어렸을 때 죽었다. 그리고 그녀의 건강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칼빈의 가장 절친한 개혁자 친구들이었던 파렐과 비레에게 보낸 그의 편지를 보면 이델레트의 신앙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 이 편지에서 칼빈은 그녀의 죽음과 그들의 삶을 함께 기술하고 있다.

아마도 제 아내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당신이 이미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슬픔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 제가 겪는 슬픔은 평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제 생애의 최고의 동반자를 잃었으니까요. 그녀는 나

19) Calvin's Letters #172, 206; *Calvini Opera* 10b:348; 11:12.

의 피난민 생활과 나의 가난에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그보다 더 심한 일이 나한테 닥치더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죽음에도 동참했을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그녀는 내 사역의 신실한 조력자였습니다.[20]

칼빈은 피난민 생활, 가난, 죽음을 언급한다. 이델레트는 피난민 생활과 가난을 함께 겪었다. 그리고 칼빈이 확신한 것처럼, 만일 필요하다면 그녀는 그와 함께 죽는 것도 각오했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역자들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말의 온전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칼빈이 이 편지를 자기와 가장 가까운 친구들, 바로 처음부터 줄곧 개혁의 동역자들이 되어왔던 두 사람에게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 편지는 칼빈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찬사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델레트 드 뷰르가 결혼을 통해서 신앙을 살아낸 방식에 대해 뭔가를 알려준다. 그녀의 결혼은 신앙 안에서 동역자 관계에 관한 개혁주의적 이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비록 그 관계가 그들을 어디로 이끌든지 말이다.

칼빈은 그녀가 임종의 순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그녀의 신앙에 대한 증언과 같았다.

"오, 영광스러운 부활이여! 오, 아브라함과 우리 모든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신실한 자들은 주님을 지난 숱한 세대들 가운데 늘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그것을 소망합니다."[21]

개혁파 여성과 결혼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이 있다. 그것은 그 사역들의 또

20) *Writings on Pastoral Piety*, 52, 53-54. First sentence from April 2, 1549, to Farel; remainder from April 7, 1549, to Viret. Letters #1171 and #1173, *Calvini Opera* 13:229, 230.

21) April 2, 1549. *Writings on Pastoral Piety*, 52-53. Letter #1171, *Calvini Opera* 13:229.

다른 면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여인들은 남편과 신앙이 달랐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과 결혼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1546년 헨리 8세 통치 때에 화형대에서 화형 당한 영국의 순교자 앤 아스큐이다.[22] 앤은 개신교의 새로운 가르침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던 훌륭한 가문 출신이었다. 하지만 잉글랜드는 당시에 여전히 본질적으로는 가톨릭이었다. 헨리 왕이 교황과 절교하고 자신이 교회의 수장이라고 선언하긴 했지만, 그의 신학적 방향성은 여전히 보수적(가톨릭적)이었다.

앤은 1545년에 체포되었다. "오직 성경"의 원리를 주장하고, 화체설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교회에서 성경을 큰 소리로 읽음으로써 헨리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오로지 사제들만 그렇게 교회에서 성경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었다.)

앤의 친척들은 그녀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협의했으나, 그녀는 자신의 신학을 바꾸지 않았다. 이듬해 그녀는 또 다시 붙잡혀 두 번째로 조사를 받았다. 이번에 그녀는 사형 언도를 받았다. 두 번에 걸친 앤에 대한 심문은 그녀가 신앙에 있어 얼마나 분명하며 잘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질문 중에 하나는 그녀의 이름에 대한 것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앤 카임이라고 불렀다. 그녀가 카임이라는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임은 그녀를 이단이라 여기며 거부했다. 그래서 그녀는 처녀 시절 성(姓)이었던 아스큐라는 이름을 다시 썼다.[23] 분명히 앤은 복음에 대한 신앙과 로마 가톨릭 성직자들이 말했던 모든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결심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이 결정 때문에 그녀는 결혼에 대한 태도 역시 결정하게 되었다. 그녀는 남편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자신의 결혼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녀의 신앙을 포기

22) Elaine V. Beilin, "Introduction", *The Examinations of Anne Askew*, ed. E. V. Beilin (NY/Oxford: OUP, 1996), xv-xxiv.
23) *The Examinations of Anne Askew*, ed. E. V. Beilin (NY/Oxford: OUP, 1996), 175, 180.

하지 않으려 했을 뿐이다.

III

이상에서 본 것처럼, 개혁파의 많은 여성들은 신앙에 대해 이미 내린 선택 때문에 결혼에 대해도 역시 선택했다. 강인하고 독실한 이 여성들 중에 대부분은 자신들의 확신에 대해 글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행한 것으로부터 추론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카타리나 슈츠는 예외가 되겠는데, 그녀는 매튜 첼과의 결혼이라는 동역 관계에 대한 생생한 그림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첼 부부는 목사의 아내라는 새로운 소명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특별한 부부였다. 이 논문의 첫 번째 섹션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왜 카타리나가 매튜와 결혼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그녀가 사제와의 결혼에 대해 옹호했는지 살펴보았다. 이번 섹션에서는 그녀가 나이 지긋한 과부로서 삶을 되돌아 볼 때에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간단하게 논하고자 한다.

그녀가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글을 썼던 주된 이유는 수양아들과 다를 바 없던 한 젊은이에 의해 그녀가 비난 받았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그녀를 이단이라고 고소했으며,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남편을 이유로 문제를 야기 시켰다. 카타리나는 그런 비방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매튜와 부써와 다른 1세대 개혁자들이 신앙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놓았는가를, 그리고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를 설명하는 일에 착수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바로 그 일에 그녀가 동참했음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카타리나는 매튜가 그녀를 자신의 동역자로서 얼마나 많이 인정해 주었으며 지지해 주었는지를 기술했다.

첼 부부의 결혼은 다른 개혁자들의 결혼과 비슷하면서도 동시에 다르기

도 하다.[24] 모든 목사 사모들처럼 카타리나도 바쁘게 집안일을 했다. 그 부부의 집은 방문하는 개혁자들을 위한 숙소 역할도 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피난처 역할도 했다. 이것은 첼 부부가 아주 진지하게 수행했던 역할이었다. 카타리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적극적으로 집으로 초대했다.

그들 부부에게는 큰 슬픔이었지만, 그들 자신의 두 아이들은 어렸을 때 죽었다. 그러나 그들은 친척들과 고아들과 더 많은 사람들을 돌보아주었다. 한번은 카타리나가 갑작스레 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숙소를 제공하고, 두 번 식사를 대접해야 했던 적이 있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었다. 또 한 번은 추방당한 목회자와 그의 가족을 겨울 내내 집에서 묵게 해야 했던 때도 있었다. 또 다른 일도 있었는데, 그녀가 개신교의 큰 회합의 저녁 식사를 주관하면서도, 동시에 참석자 중에 아픈 사람 한 사람을 간호해야 했던 때도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더 많다.

카타리나가 어떤 개신교도들이 비정통으로 간주했던 사람들을 옹호했던 적도 있었다. 이처럼 그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도와주었다. 아마도 그녀는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설교도 역시 하고자 했을 것이다. 카타리나에 따르면, 매튜는 그녀가 교구 사역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시간과 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기꺼이 허락해 주었다.

사랑하는 스트라스부르 사람들이여, 이처럼 저는 지속적이고, 즐겁게, 강인하게, 그리고 모든 선한 의지를 다해서, 제 자신의 몸과 힘과 명예와 물건들을 여러분들을 위해 바쳤습니다. 저는 저에게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을 위한

24) For a full picture of Katharina Schütz's life, see Elsie Anne McKee, *Katharina Schütz Zell. The Life and Thought of a Sixteenth-Century Reformer.* For a shorter summary, see Elsie Anne McKee, "Introduction", to Katharina Schütz Zell, *Church Mother. The Writings of a Protestant Reformer in Sixteenth-Century Germany,* 14-24.

발판으로 제공했습니다. 저의 경건한 남편도 역시 진심으로 매우 기뻐하며 이것을 허락했지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그는 나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집에 있지 않아서 그 자신이 별로 육신적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집안의 필요도 다 채워주지 못하는 일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공동체를 위한 선물로서 즐거이 나를 보내어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죽을 때에도 나에게 부탁하기를 그 활동들을 계속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우정이 담긴 요청이었지요.[25]

그런데 남편의 교구원들을 돌보느라 바빴어도, 카타리나는 배우는 일을 쉬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성경, 루터의 책, 다른 개혁자들의 글들, 경건 문헌들을 읽는 것을 정말 좋아했다. 그녀는 남편 매튜가 공부하도록 격려했으며, 모든 것을 성경에 근거하여 판단하도록 격려했다고 말한다. "첼이 살아 있을 때에, 그는 결코 제 독서나 공부를 방해하거나 금지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항상 나에게 말하기를 (자신이 그렇게 한 것처럼) 저 역시도 읽고 경청하라고 했지요. 마치 돌을 가지고 금이 진짜인지 판단하듯이, 그렇게 시험하여 보고 좋은 것을 붙들라고 했지요."[26]

카타리나는 또한 저녁 식사 탁상 담화에 포함되었다. 거기서 그녀는 손님들과 신학 논쟁을 했는데, 자신의 견해를 공손하면서도 확고하게 주장하고 설명했다. 결혼은 일평생 남편과 함께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뜻했다. 그녀는 남편이 죽고 나서도 함께 했던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내었다.

카타리나가 결혼에 대해 가진 견해들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하고 논쟁이 될 만한 측면은, 복음을 가르치고 나누는 일에 있어 자신이 매튜의 파트너였다고 주장하는 그녀의 확신과 관련된다.

그녀는 사람들을 환대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설

25) Katharina Schütz Zell, *Church Mother*, 224–25.
26) Katharina Schütz Zell, *Church Mother*, 194.

교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교정하는 일 또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목회적 심방도 역시 해야 했다. 카타리나는 말하기를 매튜가 자신을 부교역자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또한 이 장소들에서 [즉,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건대, 저는 교회의 그 어떤 조력자(*helffer*)나 목사보다 더 많은 일을 몸과 혀로 수행했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늘 주시하면서 뛰어다녔고, 이삼일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한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경건한 남편도 (이 일을 매우 기뻐하면서) 저를 부교역자(*helffer*)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비록 저는 단 한 번도 설교단에 선 적이 없었고, 또한 내가 맡은 일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지만 말입니다.[27]

(이 말은 첼의 공식적인 부교역자였던 사람에게 한 말이었는데, 그 남자는 교육을 많이 받았으나 거만했던 젊은이였다!)

카타리나 슈츠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사람을 낚는 일"이었고, 그것은 단지 남자들만의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일은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라 여겼으며, 그래서 그녀는 자기 몫을 감당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28]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직접 만날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숫자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그녀는 자기 가르침의 일부를 인쇄하기로 결심했다. 매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녀는 특별히 여인들과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경건 문서들을 출간했다. 그러나 매튜가 죽은 이후에 그녀는 아마도 자신이 그가 남긴 목회 사역을 이어가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고 믿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녀는 장례식에서 회중들에게 설교했다. 그

27) Elsie Anne McKee, *Katharina Schütz Zell. The Life and Thought of a Sixteenth-Century Reformer*, 449. See 441-49 for Katharina Schütz's description of their married partnership.
28) Elsie Anne McKee, *Katharina Schütz Zell. The Life and Thought of a Sixteenth-Century Reformer*, 440.

리고 환자와 가난한 자들을 계속 심방했다.

그녀의 후기 출판물들을 보면 그녀의 사역을 엿볼 수 있다. 그녀는 이 출판물들을 "그녀의" 교구 성도들을 위로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트라스부르의 1세대 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옹호하기 위해 말하고 썼다.

카타리나에게 결혼이란 신앙을 확증하는 일이었으며, 결혼 생활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 남편과 함께 동역자가 되는 그 중요한 일을 확증하는 것이었다. 스트라스부르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인 것 같으며, 또한 그녀를 매튜의 연장(延長)이라고 여겼다. 그 두 사람은 사역에 있어 하나님의 종들이었다. 몸은 둘이었지만 소명은 하나였다.

카타리나 슈츠 첼과 이델레트 드 뷰르 칼빈과 많은 다른 여인들은 결혼의 목적에 근거하여 개혁파의 새로운 관점을 살아내었다. 한 가지 중요한 관심사는 부도덕성에 응답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의 종교적인 안내자들이 방종적이어서, 그들 또한 방종적으로 살았다. 그래서 새로운 행동의 기준이 교회 사역자들을 위한 올바른 삶의 방식과 더불어 시작되어야 했다.

1세대의 많은 여인들은 목사의 가정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는 일을 자신들의 소명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성직자들이 불가능한 독신 서약을 하고서는 그것에 맞춰 살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성직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를 수정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명성마저도 기꺼이 단념하였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유일한 권위가 되는 성경의 토대 위에서, 구원의 수단을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받는 칭의라고 재정의 하는 개신교의 가르침을 공유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어머니라는 부르심을 기꺼이 환영했다. 그것을 2등 계급의 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들에게 주신 참되고 경건한 소명의 한 부분으로 여겼던 것이다. 어머니로서의 이러한 역할은 자기들의 가족의 경계를 넘어섰다. 그것은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단기간 혹은 장기간 자기 집에서 머물도록 환대를 늘 베풀어 준 것을 뜻한다. 그야

말로 교회의 어머니들이 된 것이다.

또한 이 여인들은 결혼 관계 내에서의 성(性)은 선한 것이라는 개신교의 견해를 공유했기에, 아내로서의 역할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한 방법이라고 여기며 자부심을 가졌다.

특별히 개혁주의적인 고유한 가르침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결혼의 본래적이고 일차적인 목적이 신앙 안에서 동역자 됨이라는 생각이다. 이 여인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 사실을 믿었고, 그것을 또한 삶으로 보여주었다.

자신이 매튜의 동역자였음을 공개적으로 확증했던 카타리나 슈츠처럼 드러내 놓고 말한 여인들은 별로 없었다. 하지만 카타리나는 이러한 개혁파 여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표현했던 것을 분명히 말해 주었다. 그들은 평등성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기독교회와 사회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있어 남편과 아내의 동역자 관계에 기초해야만 한다는 신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들은 남자들에게 결혼과 아버지 됨이 거룩한 소명들인 것처럼, 여성들에게도 역시 결혼과 어머니 됨이 거룩한 소명들이라는 자신들의 확신에 근거해서 행동했다.

[Abstract]

Katharina Schütz Zell, Idelette de Bure, and Reformed Women's Views and Experience of Marriage

Elsie Anne McKee (Archibald Alexander Professor of Reformation Studies and the History of Worship, at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The Protestant movement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early modern understandings of marriage, and women of the Reformed tradition participated actively in these changes. Protestants rejected celibacy as a good work to earn God's favor and elevated marriage as an ideal for Christians, including for clergy. One way that Reformed women expressed their faith was by marrying priests, thus acting on their conviction of Biblical authority (e.g., 1 Tim. 3) over canon law which prohibited clerical marriage. Former nuns, citizens of good reputation, married reformers as expressions of faith. A second way that Reformed women contributed to the new ideal of marriage was by the ways that they managed their households, making these models of hospitality and partnership in following Christ. A number of Reformed women chose exile for their faith and their Protestant husbands. A few, like Katharina Schütz Zell, were articulate in defending their decision to marry priests and

their calling to serve as "church mothers". Some Reformed women, like Anne Askew, demonstrated their loyalty to their faith by rejecting marriage when it came to a choice between their faith and their marriages – or their lives.

Key Words: Women, Katharina Schütz Zell, Idelette de Bure Calvin, clerical marriage, Biblical authority, partnership in ministry

[참고문헌]

Bainton, Roland. *Women of the Reformation in Germany and Italy*. Boston: Beacon, 1971.

Beilin, E. V. ed. *The Examinations of Anne Askew*. New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Calvin, J. *Calvin's Letters In Calvini Opera Selecta*.

Doumergue, Emile. *Jean Calvin. Les hommes et les choses de son temps. Tome second : Les premiers essais*. Lausanne : Georges Bridel, 1902.

Elaine V. Beilin. "Introduction", In ed. E. V. Beilin. *The Examinations of Anne Askew*. NewYork/Oxford: Oxford Uni-

versity Press, 1996.

Giselbrecht, Rebecca. "Myths and Reality about Heinrich Bullinger's Wife Anna." *Zwingliana*, vol.38. 2011.

Jussie, Jeanne de. *The Short Chronicle. A Poor Clare's Account of the Reformation in Geneva*, trans./ed. Carrie F. Klau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6.

McKee, Elsie Anne. *Katharina Schütz Zell. The Life and Thought of a Sixteenth-Century Reformer.* Leiden: Brill, 1999.

McKee, Elsie Anne. *The Pastoral Ministry and Worship in Calvin's Geneva.* Geneva: Droz, 2016.

McKinley, Mary B. "Introduction" In Marie Dentière. *Epistle to Marguerite de Navarre and Preface to a Sermon by John Calvin*, trans./ed. Mary B. McKinle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Plummer, Marjorie E. *From Priest's Whore to Pastor's Wife: Clerical Marriage and the Process of Reform in the Early German Reformation.* Farnham, UK/Burlington, NH: Ash gate, 2012.

Schütz Zell, Katharina. *Church Mother. The Writings of a Protestant Reformer in Sixteenth-Century Germany*, trans./ed. E.A. McKe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6.

Selderhuis, Herman. *Marriage and Divorce in the Thought of Martin Bucer*, tran. J. Vriend & L. D. Bierma. Kirksville, MO: Truman State University Press, 1999.